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3자 구도' 전망

<오영훈 vs 문대림 vs 위성곤>

민주당, 빠르면 이번 주 제주도지사 경선 일정 확정
오영훈 '하위 20%' 확정 속 문대림 '감산' 여부 주목
당 "광역단체장 경선은 가급적 컷오프 없이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빠르면 이번 주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당내 경선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선을 치르기 전 '감산' 여부가 경선 승패 가능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감산' 변수는 후보 간 단일화 논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공천 심사 결과 2차 발표에서 서울과 부산, 경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후보자 모두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공관위는

제주를 포함한 전북, 세종 등 나머지 지역의 공천 일정은 빠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특히 "광역단체장 당내 경선을 가급적 컷오프 없이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 경선은 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3자 구도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오 지사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로 확정 통보받았기에 경선 컷오프 가능

성도 제기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역을 한 컷오프가 없도록, 컷오프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적격 사유가 추가 발견되거나 당에 심각한 위해 등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경선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하위 평가 외에 다른 감산 대상과 관련한 최종 의견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문대림 의원의 경우 10여 년 전 공천에 불복하면서 탈당한 전력이 감산 대상인 것으로 통보받았다.

이에 제주지사 선거 구도는 오 지사가 광역단체장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으면서 한바탕 출렁거린

데 이어 최고위가 문 의원의 감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한 차례 더 충격파가 예상된다.

제주경가에서는 후보들 상황에 따라 단일화 논의도 촉발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지사는 지난달 25일 하위 20% 통보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출발이 갈아진 셈"이라며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 의원도 지난달 24일 광역단체장 면접 이후 "정치적 상황은 여러 가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반면 위 의원은 같은 날 "세 명이 단일화하는 과정이 곧 경선 과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지난 1일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앞서 제주도 조천읍 미릿동산에서 조천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조천만세대행진 "해녀항일 기념행사 격상... 북 감귤 보내기 재추진"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된 애국 선열들이 107년 만에 직접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AI 기술로 되살

아난 제주 여성교육의 선구자 최정숙, 아일랜드 선교사 패트릭 도슨,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문덕홍 등 독

립유공자들이 제주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옹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갔다.

제주도는 지난 1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구좌 하도해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에선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이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작된 제주 독립유공자 222명의 공적이 담긴 공훈록을 공개하고 후손들에게 전달했다. 일제 강점기 학교 설립에 헌신한 고(故) 홍순옥 씨와 애월초(애월리 마을회)·하도초(하도리 마을회)에는 표창이 수여됐다.

오영훈 지사는 기념사에서 '국내 최대 여성 항일운동'으로 평가받는 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를 제주도 주관으로 격상하겠다고 했다. 2010년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된 대북 감귤 보내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기념식에 앞서 제주도 조천읍 미릿동산 일원에서는 조천만세운동 재현과 함께 '조천만세대행진'이 진행됐다.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보세요

모집분야 : 신입·경력기자 0명
자격조건 : 초대졸 이상(재학생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지원 가능)
*출마일자 사원모집 배너(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첨부파일)
제출서류 :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 halla2530@hallailbo.co.kr(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 2026년 3월 6일(금)
문의 : 한라일보 총무부 ☎ 064)750-253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 제주의 선택·교육감 예비후보 특별대담 / 고의숙

"제주교육 새롭게 도약할 때"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고의숙 교육의원은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지금,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제주교육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 교육의원은 "관려기사 12면"고 교육의원은 한라일보·KCTV 제주방송·삼다일보·헤드라인제주 제주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본격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고 교육의원은 "교육 주체들이 예산과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례적 공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에 AI 교육 자료를 확대 보급하는 것은 질실하지만 맹목적 보급은 경계를 맞이한 지금,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제주교육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동지역 일반고만 늘리는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고 교육의원은 "읍면지역 학교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서부지역 IB 고등학교 신설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성화고 발전 방안으로는 "학생이 가진 특기를 단순 진학이 아닌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 연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IB 교육 확대에 대해 무한정 양적 팽창보다 질적 보완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고 교육의원은 심각한 교원 침체 문제에는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다.

서귀포, 봄이 가장 먼저 시작 되는 곳

2026 봄맞이 서귀포 축제 일정

- 제28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경기대회**
- 제주 월드컵경기장 일원 (3월 28일 - 3월 29일)
- 제2회 대륜동 한마음 벚꽃축제**
- 대륜동 호근서호로 일원 (3월 28일 - 3월 29일)
- 제3회 신중벚꽃터널축제**
- 성산읍 신풍리 레포츠공원 일원 (3월 28일 - 3월 29일)
- 제43회 서귀포 유채꽃 축제**
- 가시리 조랑말체험공원 일원 (4월 4일 - 4월 5일)
- 제3회 예래사자마을 볼꽃 나들이**
- 예래생태공원 일원 (4월 4일 - 4월 5일)
- 네 번째 서홍동 옷물교 벚꽃구경**
- 옷물교(서홍동 2053) 일원 (4월 4일 - 4월 5일)
- 제8회 서귀포베라벨축제**
-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4월 11일)
- 제15회 가파도 청보리 축제**
- 가파도 일원 (4월 17일 - 5월 17일)
- 제30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 남원읍 한남리 1622-5 (4월 18일 - 4월 19일)

* 주최 측 사정에 따른 행사 일정 변동 가능